

모스크바 테러 후 비상 걸린 서유럽...이탈리아도 보안 강화

부활절 앞두고 로마·바티칸시국 등 군중밀집 장소 감시 늘려 파리 하계올림픽·유로 2024 등 행사 임박하며 긴장감 높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알려진 총격·방화 테러가 발생한 후 서유럽 국가들도 테러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올여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가 국가 안보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데 이어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도 보안 강화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번 주말 부활절로 이어지는 성주간(고난 주간)을 맞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31일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이번 주 로마와 바티칸시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소화할 예정으로, 이들 행사에는 대규모 군중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

소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감시와 검문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전날 국가 보안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배후로 IS를 지목하고 이들이 프랑스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측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 테러를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IS의 조직이었다"며 "이들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 영토에서 또 여러 차례 (공격)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보안 태세 격상 이유에 대해 "(모스크바)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IS 측 주장과 우리 나라를 괴롭혀 온 (IS의) 위협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올해 들어 프랑스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무장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프랑스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발생 이후 자국 내 보안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테러로 연결될 수 있는 시도를 두 차례 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토의 모든 곳

에 예외적인 수준의 (안보) 수단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탈 총리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는

군인 3천명을 기차역, 예배당, 학교, 극장 등에 배치했으며 이외에도 4천명의 또 다른 안보 인력을 대기토록 했다.

독일도 테러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일 당국은 이미 모스크바 테러 이전인 지난 14일 극우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무기상을 급습해 총기 수백정과 무기 부품, 탄약 등을 압수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독일 내무부의 코넬리우스 폰케 대변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폰케 대변인은 "모스크바 테러로 인해 독일 당국의 위협 평가 정도는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여러 건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오는 6-7월 2024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유로 2024)가 열리고, 바로 뒤이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이 개막한다. 이들 행사에는 관광객 등 수십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형 이벤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과녁이 되기 쉽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쿠데타 조장 혐의' 브라질 前대통령, 헝가리 망명 시도

보우소나루, 브라질리아 헝가리 대사관에 2박3일 체류

지난해 브라질에서 발생한 대선 패배 불복 폭동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헝가리에 망명을 시도한 정황이 제기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브라질 주재 헝가리 대사관 체류 행적을 담은 내부 폐쇄회로(CC)TV 4대의 녹화 영상을 입수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카니발 연휴 기간인 지난 2월12일 오후 9시30분께 브라질리아 소재 헝가리 대사관에 검은색 차를 타고 들어와 14일 오후 4시14분께까지 머물렀다.

2박3일간 대사관 내 게스트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경호원으로부터 이들과 동행하거나 헝가리 대사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 언급을 인용, "(헝가리 대사관 측은) 2월 15일 출근 예정이던 브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라질 현지 직원에게 일주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요청했다"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구금 등 인권 구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헝가리에 망명을 타진한 것이라는 관측을 곁들였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에 "내가 당시 대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외국의 몇몇 세계 지도자와

교우 관계를 맺고 있다"며 '망명 신청' 여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브로맨스'를 몇 차례 선보인 바 있다.

2022년 헝가리를 찾았던 그는 오르반 총리를 '형제'라고 칭하며 각별한 사이임을 과시했고, 지난해 12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우했을 때는 오르반 총리가 보우소나루를 '영웅'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우파 성향의 두 사람은 각각 '브라질의 트럼프', '헝가리의 트럼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선동 혐의와 더불어 재임 시절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석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다.

한편, 브라질 외교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사관 내 일시 체류 배경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헝가리 대사를 조치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남부 '엘니뇨 가뭄' 잇단 국가재난사태

잠비아 이어 말라위 정부도 선포

엘니뇨 현상에 따른 남아프리카의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이 지역 정부가 잇달아 국가재난사태를 선언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라자루스 차케라 말라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전국 28개 지역 중 23곳에 가뭄에 따른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2억 달러(약 2천683억원) 이상의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주요 작물인 옥수수의 44%가 피해를 봤고 200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면서 약 60만명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접국 잠비아도 장기 가뭄과 가중된 식량난에 지난달 29일 국가재난사

태를 선포했고 다른 인접국 짐바브웨는 가뭄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앞서 가뭄이 닥치기 전인 작년 말 아프리카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거의 5천만명이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40년 만에 가장 건조한 2월을 보냈고 말라위, 모잠비크, 앙골라의 일부 지역은 강우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연합뉴스

美 보잉 CEO 결국 사임... '비행 중 구멍' 등 잇단 사고 원인

최근 737 기종의 잇단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수뇌부가 줄줄이 자리를 떠나게 됐다.

보잉은 데이브 캘훈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연말 사임한다고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또 보잉 이사회 래리 켈너 의장도 오는 5월 연례 회의에서 재선하지 않고 떠나고, 이에 따라 스티브 몰렌코프가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고 보잉은 전했다.

아울러 보잉 상용기 부문 CEO인 스텐 닐도 자리를 스테파니 포프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예정이다.

캘훈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사고는 보잉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하며, 안전과 품질에 대한 모든 회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시선은 우리에게 쏠려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보잉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축적한 모든 배움을 바탕으로 이 순간을 더 나은 회사로 헤쳐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썼다.

보잉 수뇌부의 대거 교체는 여객기가 약 5천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비상착륙하는 등 737 기종의 제조 결함으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